

저널리즘

2023년 교재 가이드



반값교재 양심교재 판매

정가의 절반입니다. 내용은 책과 똑같습니다. 표지 대신 투명 비닐 커버고 DIY 스프링 제본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스프링을 끼웁니다. **컴복스 교재 공동구매 전용몰(<http://commbooks.cafe24.com>)**에서만 판매합니다.



강의를 풍부하게 만드는 강의용 **PPT** 무료 제공

교재를 검토하고 채택하는 강의자에게 제일 먼저 제공합니다.

PPT 목록 확인 **PPT 신청**



검토 교재 신청

한 과목당 한 권의 검토 교재를 증정합니다.

검토 교재 신청하기

<http://commbooks.com/굿클래스/>에서

위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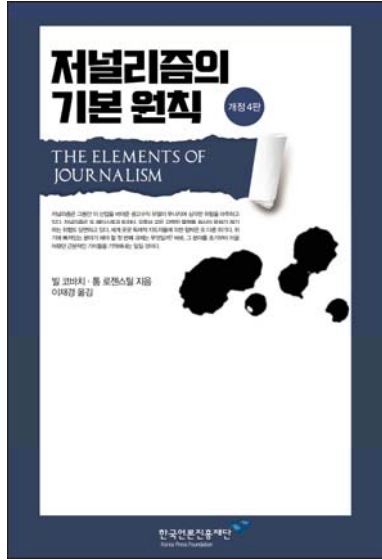
문의 **02-3700-1207,**

text@commbooks.com

차례

신간 교재	5
베스트 교재	32
과목별 교재	35
기사작성, 미디어 글쓰기	36
신문론	41
신문 제작	43
온라인 저널리즘	45
저널리즘의 이해	46
지역미디어	55
총서 교재	57

신간 교재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개정 4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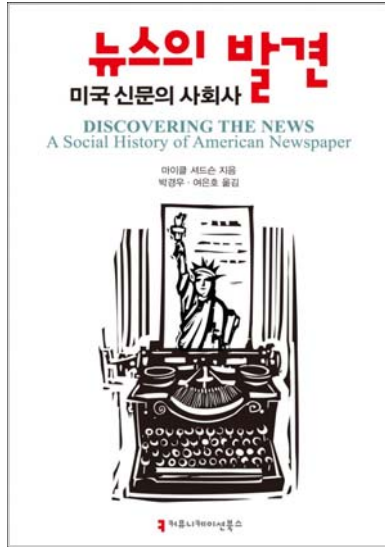
- 21세기 디지털 환경에서도 변함없는 저널리즘의 원칙 열 가지 제시
 - 4판 추가 내용: 다양한 디지털 실험과 관련 인물 소개
 - 뉴스 산업과 소비 환경의 변화 기술
 - 소셜미디어 시대 저널리스트의 역할 성찰
 - '우수저널리즘을 위한 프로젝트', '저널리즘을 염려하는 언론인위원회'에서 활동한 저자들이 저널리즘 원칙과 전망 제시
- 빌 코바치, 톰 로젠스틸, 이재경, 신국판, 600쪽, 25,000원, 2021-12



침삭 논술 지도

인문, 사회, 정치 주제의 침삭 사례 30편으로 배우는 논술의 정석 교과서

- 논술 쓰기의 정석을 침삭을 통해 제시
 - 독자는 고교생부터, 글쓰기 교양 수업 대학생, 언론사를 준비하는 예비 언론인까지
- 김문환, 사륙판, 276쪽, 15800원, 20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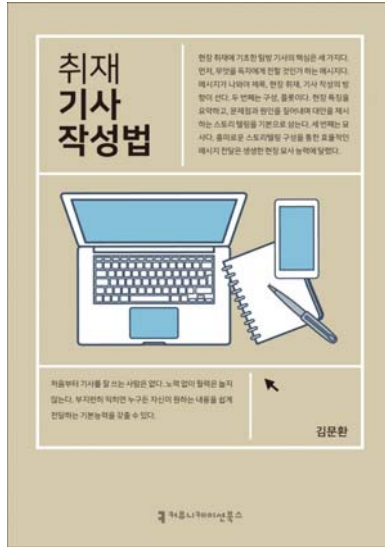


뉴스의 발견: 미국 신문의 사회사

저널리즘 연구의 대가 마이클 셔드슨의 신작. 저자는 저널리즘의 역사를 단순히 저널리즘 자체의 발달 과정으로 기술하는 대신, 그것이 동시대의 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인 변화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폭넓게 분석한다. 저널리즘의 역사라기보다는 역사 속의 저널리즘이다.

- 19세기 초 페니 신문에서 20세기 중반의 '뉴스' 까지 관찰
- 특정 시대에 나타나는 '뉴스'의 형태와 그 기저에 깔려 있는 뉴스에 대한 개념화 분석
- 미디어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 익숙해진 미디어 전공자의 관점을 확장하는 데 유리

마이클 셔드슨, 박경우·여은호, 사륙판, 448쪽, 23,800원, 2019-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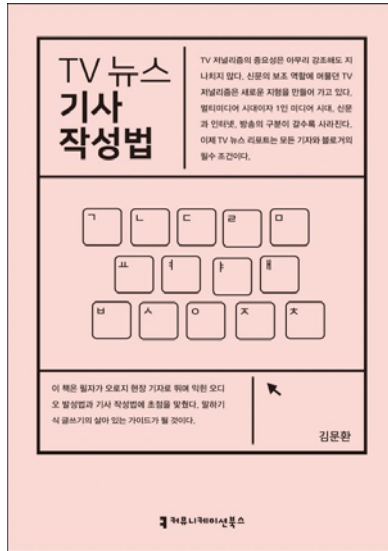


취재 기사 작성법

기자가 되어도 좋은 기사를 쓰기는 쉽지 않다. 블로거나 SNS 활동가가 현장을 맞닥뜨려도 유려한 문장으로 서술해 내기는 어렵다. 탐방 기사 중심으로 취재와 기사 작성 방법을 다룬 침착 지도서다. 어설픈 초고가 완벽한 기사문으로 완성되는 과정과 노하우를 확인할 수 있다.

- 언론사 기사 작성 능력 시험 대비
- 초년 기사를 위한 기사 작성 능력 배양
- 명소 탐방 후 감동을 기록하거나 SNS에 올리려는 블로거나 SNS 활동가를 위한 탐방 글쓰기 학습
- 저널리즘과 기사 작성에 관한 이론적 접근은 배제한 현장 실무 교재

김문환, 사륙판, 266쪽, 15,800원, 2019-05



TV 뉴스 기사 작성법

신문의 보조 역할에 머물던 TV 저널리즘은 새로운 지형을 만들어 가고 있다. 멀티미디어 시대의이자 1인 미디어 시대. 신문과 인터넷, 방송의 구분이 갈수록 사라진다. 이제 TV 뉴스 리포트는 모든 기자와 블로거의 필수 조건이다.

- 필자가 현장 기자로 뛰며 익힌 오디오 발성법과 기사 작성법에 초점
- 말하기식 글쓰기의 살아 있는 가이드
- 기자와 블로거를 위한 TV 뉴스 리포트 방법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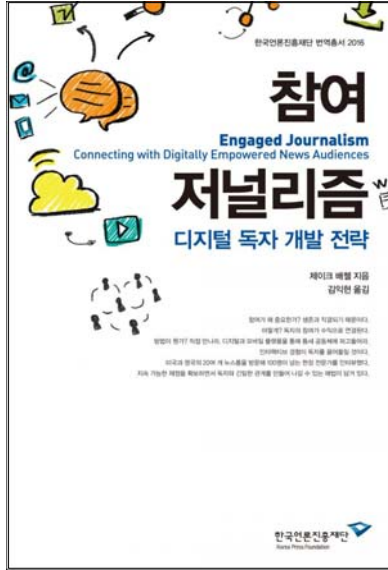
김문환, 사륙판, 342쪽, 18,000원, 2018-07



현장 취재 전에 꼭 봐야 할 재난 보도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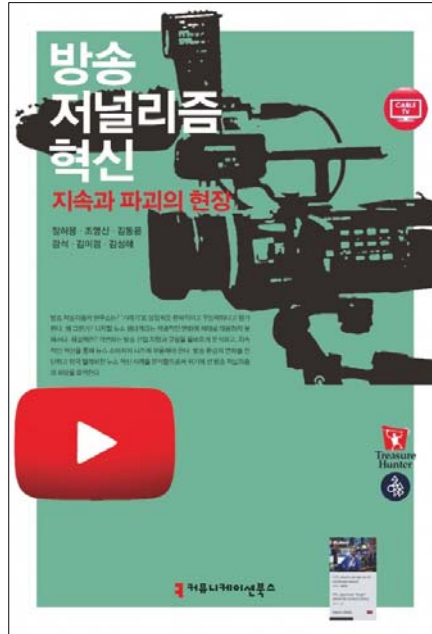
- 재난 보도와 취재와 관련된 총체적인 문제를 다루는 핸드북
 - 재난을 다루는 저널리스트의 자세, 보도 요령, 효율적인 재난 보도를 위해 사전에 준비되어야 할 실무적 지침, 재난 보도에서 지향해야 할 보도 관점의 종류와 단어 선택과 프레임의 중요성, 전문가와의 공조 필요성과 활용의 중요성, 소비자 피해와 관련된 취재 보도 요령, 재난 보도에 필요한 윤리 코드, 시민 저널리즘의 필요성 정리
 - 현장 기자와 기자가 되려는 학생을 위한 재난 보도 매뉴얼
- 마티 스테펜스 외, 유승관, 사륙판, 346쪽, 24,700원, 2018-04



참여 저널리즘: 디지털 독자 개발 전략 한글

웹 퍼스트 실험의 성공 사례와 실패담이 가감 없이 드러난다. 저널리스트들이 지금 바로 적용할 만한 이용자 참여 전략의 원칙과 수많은 아이디어를 제시된 온라인 저널리즘 시대 꼭 필요한 교재!

- 디지털 뉴스 비즈니스의 다양한 성공 사례 수록
 - 이용자 참여, 틈새 공동체 전략, 매출 창출 방법 등 매력적인 인터랙티브 저널리즘의 노하우 제시
 - 디지털 저널리즘과 미디어 기업을 연구하는 기자 출신 교수의 대중적인 서술 방식
 - 미국과 영국의 20개 뉴스룸을 방문, 100명의 현장 전문가를 인터뷰한 생생한 결과물
- 제이크 배첼, 김익현, 신국판, 294쪽, 17,000원, 2016-12



방송 저널리즘 혁신, 지속과 파괴의 현장

한국 방송 저널리즘의 위기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나? 한국 방송이 처해 있는 산업 지형을 분석하고, 규범이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가를 진단한다. 해외로 눈을 돌려 디지털 시대에 적극 대응하며 돌파구를 찾고 있는 미국 텔레비전 뉴스의 사례를 분석한 뒤, 현재 한국 방송의 혁신을 위한 노력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방송 저널리즘 복원을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장하용·조영신·김동운·강석·김미경·김성해, 신국판, 278쪽, 23,000원, 2016-02



페이스북과 저널리즘

페이스북은 저널리즘의 기본 문법을 바꿨다. 뉴스 생산자의 권력 상당 부분을 소비자들에게 나눠줬다. 여기에서 유통 플랫폼이 뉴스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플랫폼적 특성 때문에 페이스북은 때론 저널리즘의 친구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때론 저널리즘의 적처럼 보일 때도 있다. 과연 저널리즘에게 페이스북은 어떤 존재일까? 쉽지 않은 이 질문을 탐구하면서 페이스북 시대의 새로운 저널리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본다.

김익현, 사륙판, 108쪽, 9800원, 2021-10



알고리즘과 저널리즘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에서 ‘인공지능이 수행하는 알고리즘 저널리즘은 과연 저널리즘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가?’ 알고리즘 저널리즘은 인간의 편견을 배제한 객관적인 정보 선별자이며, 일부 저널리스트들에게 주어졌던 정보 독점권을 해제한 민주적인 정보 교류인가? 혹은 기계적인 편집으로 독자의 요구에 맞추며 저널리즘 고유의 가치를 배제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이런 질문을 바탕으로 알고리즘과 뉴스 가치, 가짜 뉴스, 사회적 위기, 붓의 등장 등의 이슈를 네이버, 카카오톡,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실제 사례와 함께 논의한다.

이재원, 사륙판, 88쪽, 9800원, 2021-10



한국 언론의 정파성

한국 언론의 정파성 문제를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언론의 정파적 의견 주장이 언론 자유의 보호 속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으로 소비될 게 아니라 이성적 공론장에서 토론될 수 있어야 한다. 정파적 의견 주장이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정당화된 것이라면 정파적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토론을 통해 그 주장의 참과 거짓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제시된 근거를 통해 지적 자극을 받음으로써 사회적 진리 추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정훈, 사륙판, 82쪽, 9800원, 2021-10



세계 공영방송과 디지털 혁신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이다. 공영방송은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유용한 수단이다. 공영방송이 사회적 제도로 자리 잡은 국가들은 언론자유지수가 높다. 그들은 일찌감치 미디어 환경변화에 발맞춰 법과 제도를 개선했다. 공론장을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정보·교육·교양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높이는 필수 장치로 공영방송을 인식한다. 행정부, 의회, 방송사가 삼위일체가 돼, 공영방송 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다른 나라 공영방송과 디지털 혁신을 살펴봄으로써, 대한민국 공영방송 제도의 발전 방향과 미래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신삼수 · 봉미선, 사륙판, 138쪽, 9800원, 2021-10



비전문직주의 저널리즘

저널리즘은 전문직주의 중심적 사고만으로 이해하기 벅찬 영역으로 변하고 있다. 저널리즘은 주류 언론 외부의 다양한 비전문적 행위자들에게 열려있는 장으로 변하기 시작한지 오래며 그 영향력은 전문직주의 저널리즘 영역 안으로까지 침투하고 있다. 전문직주의 저널리즘과 비전문직주의 사이의 경계마저 무너지고 있다. 이 책은 전문직주의 저널리즘 외부에서 태동하고 발전을 거듭한 비전문직주의가 저널리즘에 미친 영향력과 그 함의를 다룬다. 하지만 저널리즘의 비전문직주의가 무엇이라고 단정하진 않는다. 대신 그것을 둘러싼 변화와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어떤 질문과 새로운 관점들이 요구되는지를 탐색한다.

유용민, 사륙판, 90쪽, 9800원, 2021-10



메타버스의 이해

우리나라는 메타버스에 대한 전 세계 관심도 조사에서 1위에 올랐다. 현실을 초월하는 디지털 공간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활용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책은 메타버스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포괄적이고 개괄적인 접근을 통해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데 주력했다. 메타버스의 개념과 유형, 특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기술적, 윤리적, 법적 이슈를 다루었다. 또한 메타버스의 성장을 주도하는 MZ세대와 기능적, 유형적, 기술적 차원의 융복합 형태로 진화하는 메타버스를 살펴보고, 메타버스의 미래를 전망한다.

성윤택·송영아·황경호, 사륙판, 86쪽, 9800원, 2021-10



인공지능, 법·윤리·저널리즘의 이해

인공지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술뿐만 아니라 법과 윤리도 중요하다. 법과 윤리는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법은 인공지능 활용에서의 규칙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윤리는 인공지능 개발과 사용을 위한 유연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준다. 이 책은 법과 윤리의 측면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인 법인격, 책임능력과 책무, 공정성, 저널리즘, 저작권, 윤리적 딜레마 등을 소개한다. 인공지능에 대해 기초적 지식을 얻고 싶은 이들에게 이 책은 흥미롭고 유용한 소재를 제공할 것이다.

박아란, 사륙판, 90쪽, 9800원, 2021-10



미디어 구독 모델

소유권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접속의 시대가 열리면서 구독경제가 화두다. 2020년 초부터 시작한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구독모델이 급성장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심지어 차량까지 이어지고 있다. 영상, 출판, 음악, 게임 등 미디어 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플랫폼 구독모델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미디어 기업으로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뉴욕타임스, 서브스택, 스포티파이, 만타 코믹스, 카카오킥ON, 애플 아케이드 등이 있다. 이들은 어떠한 전략을 갖고 비즈니스 모델을 이룩했으며 미래 전망은 어떨까?

유건식, 사륙판, 90쪽, 9800원, 2021-10



포털 뉴스서비스의 저널리즘

뉴스 콘텐츠 생산, 유통, 소비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핵심은 포털 뉴스서비스다. 2000년 네이버에서 시작된 우리나라 포털 뉴스서비스 역사는 20년이 훌쩍 넘었다. 일부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포털사이트를 비롯한 인터넷 플랫폼의 뉴스 시장 장악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의 포털 뉴스서비스 역사를 간략히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이다.

김위근, 사륙판, 96쪽, 9800원, 2021-10



비주얼 저널리즘

비주얼 저널리즘의 종류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최근의 비주얼 저널리즘과 관련된 사례들을 4가지로 나누어 소개했다. 지금까지 나타난 근래의 비주얼 저널리즘을 웹플랫폼 통합형 비주얼 저널리즘, VR 등 몰입형 비주얼 저널리즘, 인포그래픽 기반 비주얼저널리즘, 소셜 미디어상의 탐사-설명 비주얼 저널리즘으로 정리하고, 각각의 사례를 통해 이들 비주얼 저널리즘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논의했다. 이 책은 지금까지 나타난 디지털 저널리즘의 일환으로 나타난 비주얼 보도가 어떠한 형식으로 진화하고 있는지를 정리한 의의를 가진다.

윤호영, 사륙판, 102쪽, 9800원, 2021-10



솔루션 저널리즘

솔루션 저널리즘은 기존 언론의 부정적 편향성을 지적하고 대안적 보도 방식을 제시한다. 문제를 지적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집중함으로써 현실이 개선되어 간다는 효능감을 계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정교하고 증거에 기초하며 정확하고 균형 잡힌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기여하고 개인에게 행동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사회 변화를 촉발시키는 보도라고 할 수 있다.

이미나·이규원, 사륙판, 78쪽, 9800원, 2021-10



공영방송, 혁신의 길

한국 사회에서 공영방송이란 무엇인가? 여전히 필요한가? 어떤 공영방송을 지향하는가? 공영방송 혁신을 논하기에 앞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숙고해야 할 질문들이다. 좋은 미디어 없이 건강한 민주주의와 좋은 사회는 구현될 수 없다. 비판과 비난, 냉소와 외면, 법제도적 규제만으로 미디어 혁신은 불가능하다.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재건을 견인해 갈 수 있는 미디어를 발굴하고 설계하고 구현하는 방식의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 미디어 생태계와 건강한 공론장을 견인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제도적 형식, 바로 공영방송이다. 공영방송 혁신은 지난한 여정이자 긴 호흡을 요한다.

정수영, 사륙판, 106쪽, 9800원, 2021-10



뉴스 소비의 변화

영화, 연극이나 스포츠의 관중 등 직접 접하는 사람을 의미하던 뉴스 소비자는 4대 매체(TV, 라디오, 신문, 잡지)에 의존하면서 문자 해독과 영상 인식이 가능한 ‘시청자(이용자)’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개념은 온라인 사회현상이 도래함에 따라, ‘발품 파는 주변 검색인’으로 변화되었고, 의미가 확대되기 시작하여 자신이 직접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큐레이션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2000년 전후로 대중매체, 대중문화, 대중사회라는 개념을 출현시키면서 매체 소비자의 개념으로 확대되었고, 이는 ‘뉴스의 소비자’, 즉 ‘수요와 공급을 누가나 할 수 있는 자의 패러다임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체영, 사륙판, 102쪽, 9800원, 2021-10



미디어 다양성 가치

미디어의 다양성 추구 가치는 독자나 시청자의 다양한 의견에 대한 노출로 이어져야 한다. 수용자의 내용 다양성에 대한 노출은 다시 건전한 시민의식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미디어 다양성이 일반인의 올바른 시민권 행사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21세기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에서 온라인 매체의 다양성 추구 가치는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알고리즘에 의해 걸러지는 경향을 보인다. 소위 필터 버블에 의해 수용자는 확증편향의 에코 챔버에 갇히게 되는 부작용까지 낳고 있다. 이는 다양성 추구의 결손으로 나타나며 대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집단사고(groupthink)를 유발할 수 있다.

심재철, 사륙판, 82쪽, 9800원, 2021-10



미디어 기업의 ESG

ESG는 기업에게 자기 이익 추구를 포기하고 자선사업가 혹은 착한기업으로 성장하라는 것이 아니다.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 기업의 재무 영역뿐만 아니라 비재무 영역까지 관리하라는 것이다. 미디어 기업은 ESG 활동을 통해 자사 이윤추구와 공적 책무를 동시에 해결하는 일석이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ESG 경영을 위한 미디어 기업의 준비는 매우 미흡하다. ESG 전반과 미디어 기업이 적용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 살펴본다.

우형진, 사륙판, 120쪽, 12,000원, 2022-10



게임 콘텐츠와 젠더 재현

게임은 주로 폭력적 문화 혹은 중독과 관련되어 논의되어 왔다. 유해성과 산업적 가능성에 집중되어 있는 게임 문화연구는 다양한 사람들이 게임과 맺고 있는 관계와 즐거움들을 설명하기 어렵다. 2021년 글로벌 게임 산업에서는 여성과 다양성 문제가 강조됐으며 게임 문화 내 혐오차별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책은 게임 문화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출발점으로 게임 문화의 변화를 요구하는 논의들이 어떤 관점에서 제기되는지를 살펴본다.

김수아, 사륙판, 128쪽, 12,000원, 2022-10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다양성 그리고 편향

디지털 뉴미디어로의 전환은 미디어 이용과 콘텐츠 소비 과정에 높은 다양성을 제공해 주었다. 이제는 나만의 방식으로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인공지능은 개인화된 미디어 이용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원하는 콘텐츠를 찾아 자동으로 추천해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사용자를 자신이 좋아하는 콘텐츠만 소비하는 선택적 노출로 이끌고 자신의 신념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확증 편향에까지 이르게 만든다. 이 책은 인공지능과 결합된 뉴미디어 이용이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특히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작동원리를 알아보고 알고리즘이 미디어 이용의 다양성에 미칠 수 있는 장기적 관점의 부작용에 대해 살펴본다.

이재신, 사륙판, 104쪽, 12,000원, 2022-10



공영방송과 미디어 다양성

미래지향적인 공영방송의 담론은 현재의 거버넌스, 공정성 논쟁으로부터 벗어나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공영방송을 논의해야 한다. 특히 사회 갈등이 심각한 한국 사회에서 다양성은 앞으로 중요한 사회적 화두이자 공영방송이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공적 가치다. 이 책은 공영방송의 다양성을 논의하기 위해 미디어 다양성 개념과 조사 방법, 미디어의 재현, 조직의 다양성,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보고,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한다.

유수정, 사륙판, 98쪽, 12,000원, 2022-10



가족 다양성과 미디어

미디어는 당대 가족상을 재현하여 동시대성을 획득하는 동시에 오늘날 변화하는 가족상과 균열을 일으키며 역사성을 드러낸다. 혼인과 출산 이행의 변화로 인해 가족 구성의 모양새가 변하면서 방송 프로그램도 다양한 가족 형태를 대변하고 있다. 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프로그램에 등장하고, 이러한 미디어의 가족 다양성은 기존 가족 기능의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이 책을 통해 가족다양성을 재현하는 미디어의 역할을 살펴보는 동시에 가족 형태의 유형화가 만들어 낼 또 다른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경계(境界)를 경계(警戒)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은별, 사륙판, 102쪽, 12,000원, 2022-10



인공지능 시대의 미디어윤리

인공지능을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증가하면서 미디어를 통한 범죄도 덩달아 늘고 있다. 인간의 편견이 알고리즘에 반영된 혐오표현이 증가하고 있으며 얼굴 사진이 딥페이크를 통해 조작돼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이 발생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창작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크롤링으로 수집한 데이터와 정보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메타버스 환경에서 아바타에 대한 성범죄와 인격권 침해도 나타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인공지능 기술 발달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짚어본다. 윤리와 법의 측면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개선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박아란, 사륙판, 110쪽, 12,000원, 2022-10



뉴스룸 다양성

최근 저널리즘의 위기 국면에서 저널리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미국 및 유럽 언론사를 중심으로 다양성, 공정성, 포용성 (DEI: Diversity, Equity, Inclusion)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운동이 뉴스룸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뉴스룸 다양성은 아직 개념적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못했다. 이 책은 뉴스룸 다양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관점과 연구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뉴스룸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알아보고 한국에서 뉴스룸 다양성을 진단하고, 뉴스룸 다양성을 위해 공영방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안한다.

김선호, 사륙판, 86쪽, 12,000원, 2022-10



로봇저널리즘

로봇저널리즘은 알고리즘이 프로그램된 목적에 따라 소재를 수집, 정리, 그리고 기사 형태의 글을 쓰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로봇저널리즘이 부상하면서 그에 대한 공학적 설명이 무성하게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로봇저널리즘이라는 새로운 양식을 인문·사회적 맥락에서 다룬 글은 드물다. 이 책은 저널리즘, 인공지능, 그리고 사유의 체계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복잡한 개념을 포괄한다. 그러나 각 개념의 세부 사항 설명보다는 필자의 관점 제시에 집중했다. 언론 현장의 이야기를 접목시켜 언론사의 미디어 경영 전략에 대한 실재적 이해를 제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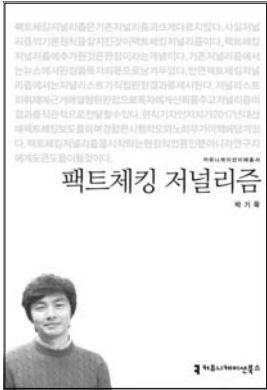
김대원, 사륙판, 114쪽, 12,000원, 2022-07



가짜 뉴스

가짜 뉴스로 인한 여론 왜곡과 사회 분열이 심각하다. 최근 가짜 뉴스는 국내외에서 심각한 사회 이슈이자 정치적 논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현상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와 다양한 사례에 대한 체계적 분석, 그 사회적 영향력의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가짜 뉴스를 빌미로 인터넷에서 소통을 억압하고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는 물론 민주주의까지 후퇴시킬 수 있기에 신중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 책에서는 가짜 뉴스에 관한 선행 연구와 언론에 보도된 가짜 뉴스 사례를 중심으로, 풍자·패러디·루머·도용·오보·광고형 기사 등의 개념과 가짜 뉴스 개념을 비교해 설명하고 이에 관한 논쟁을 유형별로 나누어 정리했다.

박주현, 사륙판, 138쪽, 9800원, 2018-03



팩트체킹 저널리즘

팩트체킹 저널리즘은 기존 저널리즘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실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잘 지킨 것이 팩트체킹 저널리즘이다. 팩트체킹 저널리즘은 저널리즘의 본질이라는 개념이다. 기존 저널리즘에서는 뉴스에서 판정을 독자 몫으로 남겨 두었다. 반면 팩트체킹 저널리즘에서는 저널리스트가 직접 판정 결과를 제시한다. 저널리스트의 취재에 근거해 결정된 판정은 독자에게 신뢰를 주고 저널리즘의 결과를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현직 기자인 저자가 2017년 대선 때가 짜 뉴스 검증 코너를 시작으로 팩트체킹 보도를 하며 경험한 시행착오와 노하우가 이 책에 담겨 있다. 이 책은 팩트체킹 저널리즘을 시작하는 현장의 언론인뿐 아니라 팩트체킹으로 전문 영역을 구축하려는 연구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박기목, 사륙판, 110쪽, 9800원, 2018-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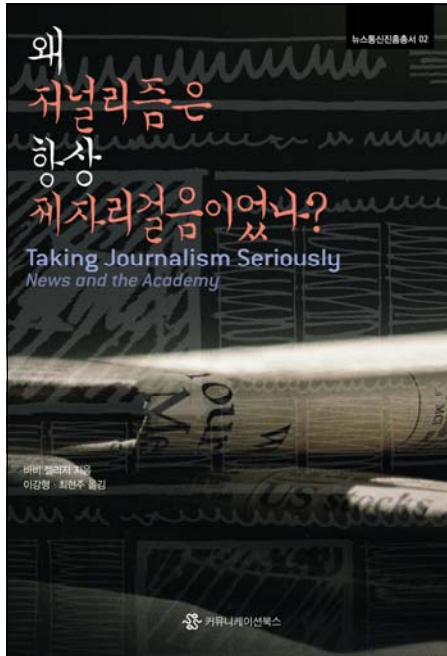
베스트 교재



저널리즘 글쓰기의 논리

저널리즘 글쓰기의 원리는 어디서 비롯되나? 언론에 부여된 사회적 요구에서 시작된다. 기자에게 부여된 사회적 요구는 무엇인가? 언론사주에게는 상업성을, 시민에게는 공익성을 보장해야 한다. 상업성과 공익성은 절충가능한가? 상호모순적인 두 요구는 객관주의로 통합된다. 대학 저널리즘 글쓰기 전담 교수와 현직 기자가 저널리즘 글쓰기의 논리를 분석했다. 기사 작성의 기본 원리와 구체적 기법을 한 권으로 익힐 수 있다. 기사 첨삭 사례와 자기 소개서 작성법은 언론사 시험 준비에 유용하다.

남재일·이재훈, 신국판, 334쪽, 18,500원, 2013-08



왜 저널리즘은 항상 제자리걸음이었나?

저널리즘 연구를 사회학, 역사학, 언어연구, 정치학, 문화 분석의 다섯 가지 관점에서 고찰하여 저널리즘의 본질과 쟁점, 중요성과 생존 가능성을 진지하게 논의한다.

바비 젤리제, 이강형·최현주, 신국판, 402쪽, 27,000원, 2010-04

과목별 교재

기사작성, 미디어 글쓰기



저널리즘 글쓰기

언론인을 꿈꾸며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책. 언론에서 이뤄지는 글쓰기는 무엇이며, 어떻게 글쓰기 능력을 높일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기사 쓰기만이 아니라 취재 방법과 요령을 알려 주고, 여러 형태의 기사 쓰기 방법을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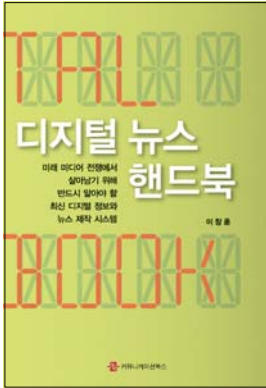
배정근, 신국판, 198쪽, 15,000원, 2007-09



저널리즘 글쓰기의 논리

저널리즘 글쓰기의 원리는 어디서 비롯되나? 언론에 부여된 사회적 요구에서 시작된다. 기자에게 부여된 사회적 요구는 무엇인가? 언론사주에게는 상업성을, 시민에게는 공익성을 보장해야 한다. 상업성과 공익성은 절충가능한가? 상호모순적인 두 요구는 객관주의로 통합된다. 대학 저널리즘 글쓰기 전담 교수와 현직 기자가 저널리즘 글쓰기의 논리를 분석했다. 기사 작성의 기본 원리와 구체적 기법을 한 권으로 익힐 수 있다. 기사 첨삭 사례와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언론사 시험 준비에 유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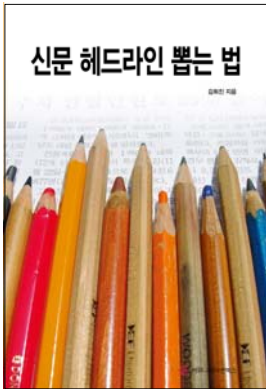
남재일·이재훈, 334쪽, 18,500원, 2013-08



디지털 뉴스 핸드북

HD 시대, 방송기자의 경쟁력은 디지털 기술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 책은 방송기자가 꼭 알아야 할 디지털 뉴스의 핵심 정보를 정리한다. 달라진 취재·제작 환경과 방송기자에게 유용한 디지털 취재 기법을 소개한다. HD 전환과 테이프리스 기술의 도입에 따른 변화와 문제점을 살피고, 새로운 뉴스 제작 시스템으로 디지털 뉴스룸을 소개한다.

이창훈, 신국판, 292쪽, 19,000원, 2008-05



신문 헤드라인 뽑는 법

신문사 편집기자는 물론 잡지사 편집기자, 교사, 문인, 학생, 일반인을 위한 편집교재. 기사의 품질을 대표하는 제목 선정과 서두 전개 방법에 대해 기술하고, 신문 기사의 오용 사례를 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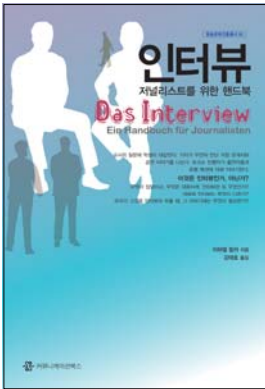
김희진, 신국판, 345쪽, 23,000원, 2000-05



인터넷 시대, 실전취재보도론

온라인 매체 시대에 기자가 갖추어야 할 소양과 취재 요령, 기사 작성법 등을 풍부한 최신 사례 중심으로 상세히 소개한다. 특히 인터넷 시대에 걸맞는 인터넷형 기사 작성법과 언론법제 상식 및 실제 판례는 예비 언론인뿐 아니라 현직에 종사하는 언론인들에게까지 유용한 지식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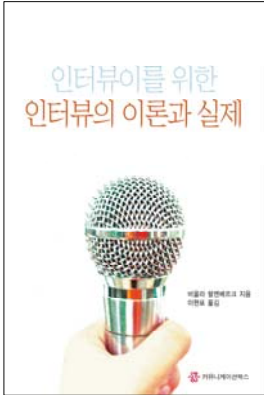
김창룡, 신국판, 222쪽, 15,000원, 2007-04



인터뷰: 저널리스트를 위한 핸드북

저널리즘 인터뷰의 모든 것을 정리한다. 인터뷰의 정의와 형식, 좋은 인터뷰는 어떤 것인지 탐색한다. 다양한 인터뷰 기술도 소개한다. 인터뷰와 관련된 미디어법 등에 관해서도 다루었다. 실제 인터뷰 사례와 인터뷰 기사가 실려 있어 이론과 실무를 함께 익힐 수 있다.

미하엘 할러, 강태호, 신국판, 450쪽, 23,000원, 2008-12



인터뷰이를 위한 인터뷰의 이론과 실제

독일의 여론지도층, 홍보담당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언론과의 교제 요령을 강의해 오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의 저서. 언론에 보도되는 당사자를 비롯해 정보 제공자와 기자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일곱 가지 금기사항에서부터 인터뷰 준비, 인터뷰, 보도 이후의 처방, 특수 사항에 이르기까지 인터뷰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비올라 팔켄베르크, 이현표, 신국판, 223쪽, 10,000원,
2001-06



신문, 좋은 문장 나쁜 문장(개정증보판)

꾸준히 인기를 끌어난 『좋은 문장, 나쁜 문장』의 개정증보판이다. 최근 신문 기사를 보충하고, 필자의 강의에서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습작 기사와 논설을 실었다.

최재완, 신국판, 215쪽, 12,500원, 2006-01



클릭을 부르는 인터넷 뉴스 헤드라인

클릭을 부르는 인터넷 뉴스 제목은 무엇이 다를까? 제목만 보고 클릭하는 인터넷 독자들의 심리는 무엇일까? 기사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면서도 독자의 이목을 사로잡는 제목은 어떻게 뽑을까? 이 책은 좋은 제목과 나쁜 제목을 동시에 보여 주면서 이러한 물음을 던진다.

박희석, 신국판, 210쪽, 15,000원, 2007-07

신문론



뉴스의 역사(개정 3판)

1988년 초판 발행 이후부터 3판이 출간된 지금까지 언론학자들의 한결같은 사랑을 받아온 최고의 역사서. 방대한 뉴스의 역사를 쉽고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다양한 일화와 사례를 통해 뉴스의 탄생과 발달 과정을 흥미진진하게 풀어낸다. 3판에서는 텔레비전 뉴스와 여성·소수민족 보도, 인터넷과 블로그 연구 등을 추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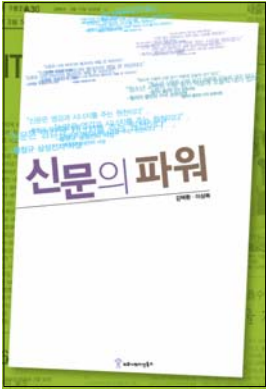
미첼 스티븐스, 이광재·이인희, 사륙배판 변형, 562쪽,
28,000원, 2010-03



사라지는 신문 독자

언제부터인가 국민들 곁을 떠나고 있는 현상이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국 신문 위기의 구조적 원인을 과학적이고 실증적 방법으로 분석해 대안을 제시한다.

김경호·김동규·김희경·반현·이준웅·장호순·최영재·황용석,
신국판, 276쪽, 18,000원, 2005-11



신문의 파워

영상 과잉 시대에 신문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며,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다룬다. 그리고 좋은 뉴스, 가치있는 정보, 앞서가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또 신문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김택환·이상복, 신국판, 228쪽, 12,000원, 2006-03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

세계적인 저널리즘의 교과서, 『허친스 보고서』의 국내 최초 완역판. 허친스 위원회의 연구 결과는 미국 언론사에서 사회 책임이론(social responsibility doctrine)의 모태가 되었다.

허친스위원회, 김택환, 신국판, 200쪽, 12,000원, 2004-05

신문 제작



부산일보 편집 스타일북

부산일보의 편집 로드맵이지만, 일반적인 신문 편집 스타일에 대한 가이드북이 될 수 있다. 다양한 편집 사례를 보고자 하는 신문 편집기자와 출판물 편집 디자이너, 이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예비 편집기자들에게까지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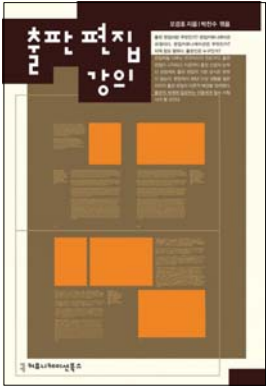
부산일보 편집부, 사륙배판, 232쪽, 28,000원, 2006-12



전북도민일보 편집 스타일북

전북도민일보 편집에 사용되는 기본 원칙, 제목, 레이아웃, 사진, 그래픽, 표기준칙 등을 정리한 편집 스타일북이다.

전북도민일보 편집부, 사륙배판, 136쪽, 28,000원, 2007-11



출판 편집 강의

출판 편집이란 무엇인가? 편집커뮤니케이션 과정이다. 편집 커뮤니케이션은 무엇인가? 지적 창조 행위다. 출판인은 누구인가? 편집학을 다루는 연구자이자 전문가다. 출판 편집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출판 산업의 눈부신 성장에도 출판 편집의 기본 공식은 변하지 않는다. 현장에서 30년 이상 경험을 쌓은 저자가 출판 편집의 이론적 배경을 정리했다. 출판의 세계에 입문하는 이들에게 필수 지침서가 될 것이다.

오경호·박찬수, 신국판, 148쪽, 13500원, 2015-08

온라인 저널리즘



인터넷 신문과 온라인 스토리텔링

이 책은 온라인 스토리텔링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멀티미디어성이 기사 형태의 확장이라면, 링크는 기사 내용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 스토리텔링이란 개념의 밑바탕에는 이처럼 전통적인 기사 형식의 확장이라는 문제 의식이 담겨 있다. 특히 수익 모델 창출이란 공통적인 고민을 안고 있는 인터넷신문들에겐 온라인 스토리텔링을 통한 차별화가 해답이 될 것이다.

김익현, 신국판, 219쪽, 13,000원, 2003-11



인터넷에서는 무엇이 뉴스가 되나?

이용자의 쌍방향적 참여를 끌어내고자 하는 인터넷 신문에서 주요한 기사로 취급받는 것은 어떤 특성을 지닌 아이템인지, 또 인터넷에서 고유한 뉴스 가치가 있다면 그 기준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과정과 배경을 들여다본다. 인터넷 언론 게이트킥핑의 특성과 뉴스 가치는, 언론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서 정보 가치를 고민하는 사람들의 일반적 관심을 충족시켜줄 것이다.

구본권, 신국판, 181쪽, 14,000원, 2005-06

저널리즘의 이해



뉴스의 사회학 반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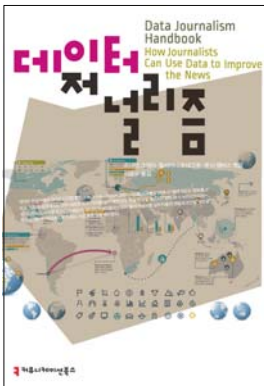
저널리즘이란 무엇인가? 사건의 정보와 논평을 익명의 수용자에게 정기적으로 알리는 사회적 제도다. 뉴스란 무엇인가? 기술, 경제, 정치, 심지어 문학의 제약 아래에서 동시대 삶의 다양한 특징을 기록하고 해석하는 표현 체계다. 무엇이 뉴스를 만드나? 우연과 의도, 정상과 재앙, 계획과 돌발, 기대와 놀람, 내러티브와 감탄사의 공존이다. 이 책은 저널리즘의 정의, 뉴스 미디어 효과, 뉴스 생산 과정과 구성요소, 21세기 뉴스 지형 변화를 설명한다. 뉴스 연구자와 일반 독자 모두에게 폭넓은 시각을 제공할 것이다.

마이클 셔드슨, 이강형, 신국판, 346쪽, 15000원, 2014-12



대안언론

최초로 세계의 대안언론을 고찰했다. 미국, 영국, 발칸 반도,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의 사례를 다뤘다. 진, 팬진, 블로그, 웹 사이트, 길거리 신문, TV·라디오 방송을 문화·역사·정치적 맥락에서 분석했다. 대안언론의 역사를 개괄하고 정치경제학적 딜레마, 다양화 정책과 기업화, 운영 실패를 기술했다. 대안언론의 흐름을 인식하고 논의를 체계화하는 데 유용하다. 크리스 애튼-제임스 해밀턴, 이효성, 신국판, 218쪽, 18,000원, 2011-03



데이터 저널리즘 반값

데이터 저널리즘이 뭔가? 디지털 정보와 뉴스 스토리텔링의 결합이다. 왜 지금 중요해졌나? 웹에 떠도는 정보를 모으고 거르고 시각화하는 것이 새로운 뉴스 가치를 낳기 때문이다. 어떻게 익힐 수 있나? BBC와 《시카고트리뷴》, 《가디언》의 사례를 분석하며 배운다. 데이터 저널리즘의 선도자들이 저널리즘 실무자들의 경험과 조언을 책으로 엮었다. 데이터 저널리스트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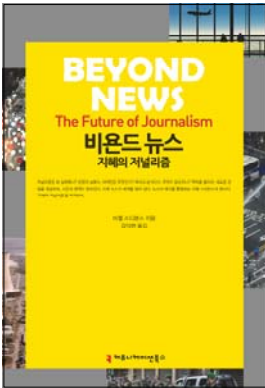
조너선 그레이·릴리어나 부네그루·루시 챔버스, 정동우, 신국판, 394쪽, 25000원 2015-02



방송 저널리즘 혁신, 지속과 파괴의 현장

방송 저널리즘의 현주소는? ‘기레기’로 상징되듯 편파적이고 무능력하다고 평가된다. 왜 그런가? 디지털 뉴스 생태계라는 혁명적인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다. 해결책은? 격변하는 방송 산업 지형과 규범을 올바르게 분석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뉴스 소비자의 니즈에 부응해야 한다. 방송 환경의 변화를 진단하고 미국 텔레비전 뉴스 혁신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위기에 선 방송 저널리즘의 희망을 모색한다.

장하용·조영신·김동윤·강석·김미경·김성혜, 신국판, 278쪽, 23,000원, 2016-02



비욘드 뉴스, 지혜의 저널리즘

저널리즘은 왜 실패했나? 관점의 실패다. 대책안은 무엇인가? 해석과 분석이다. 무엇이 달라지나? 맥락을 뚫어라.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라. 사건의 영역이 달라진다. 이제 뉴스가 세계를 읽어 낸다. 뉴스의 역사를 통찰하는 미첼 스티븐스의 메시지, ‘지혜의 저널리즘’을 목격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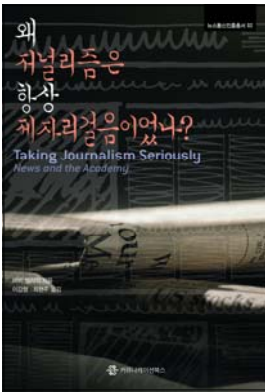
미첼 스티븐스, 김익현, 신국판, 364쪽, 21,000원, 2015-11



언론학의 20가지 개념

언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이론과 사상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 책은 언론 개념과 알권리, 인터넷과 디지털, 언론의 자유와 윤리 등 세계 언론의 중요한 이슈와 사상 20가지를 엮어, 언론학에 관심있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본 안내서다. 다양한 언론의 역사와 현상을 한 권으로 접할 수 있다.

김춘욱, 신국판, 140쪽, 12,000원, 2005-02



왜 저널리즘은 항상 제자리걸음이었나?

저널리즘 연구를 사회학, 역사학, 언어연구, 정치학, 문화분석의 다섯 가지 관점에서 고찰하여 저널리즘의 본질과 쟁점, 중요성과 생존 가능성을 진지하게 논의한다.

바비 젤리제, 이강형·최현주, 신국판, 402쪽, 27,000원, 2010-04



웹 2.0과 저널리즘 혁명

집단지성과 UCC, 1인 미디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온라인 미디어의 발전 방향을 알아보려고 노력했다. 요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RSS와 태그 역시 웹 2.0 시대의 온라인 미디어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들이다.

김익현, 신국판, 156쪽, 12,000원, 2007-10



저널리즘과 선진 민주주의

경성 뉴스에서 연성 뉴스로 이탈하는 소비자를 붙잡기 위해 저널리즘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뉴스의 범위와 깊이는 어디까지인가? 미디어는 얼마나 균형 있는 뉴스를 보도하는가? 그동안 과편적으로 논의되었던 미디어 사례를 정리하고, 영국을 비롯해 미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의 뉴스 미디어를 비교해 저널리즘의 미래를 예측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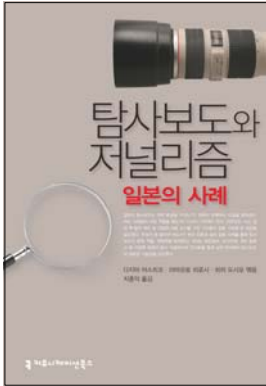
피터 J. 앤더슨·제프 워드, 반현·노보경, 신국판, 458쪽, 25,000원, 2008-12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 반값

지금 저널리즘의 최대 화두는 무엇인가? 뉴스 산업과 소비 환경의 변화다. 저널리스트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뉴스의 존재 양식과 표현 방식을 다듬되 기본에 충실하려 노력해야 한다. 저널리즘의 기본이란? 시민들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저널리즘의 위기를 진단하고 처방해 온 저자들이 저널리즘의 원칙 열 가지를 제시한다. 언론의 위기를 고민하는 기자와 학생, 시민들의 필독서다.

빌 코바치·톰 로젠스틸, 이재경, 신국판, 490쪽, 15,000원, 2014-12



탐사보도와 저널리즘, 일본의 사례

일본의 탐사보도는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 권력이 은폐하는 사실을 밝혀낸다. 어떤 사례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다나카 가쿠에이 연구, 리쿠르트 사건, 일미 핵 밀약 보도 등 치밀한 자료 조사를 거친 기사들이 일본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우리가 왜 알아야 하는가? 한국 언론과 닮은 일본 사례를 통해 탐사보도의 영역, 역할, 영향력을 탐색한다. 저자는 중앙일보, 뉴스타파, 개인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의 탐사 저널리스트 인터뷰를 함께 실어 한국에서 탐사보도의 새로운 가능성을 진단한다.

다지마 야스히코·아마모토 히로시·하라 도시오, 지중익, 신국판,
248쪽, 18,000원 2014-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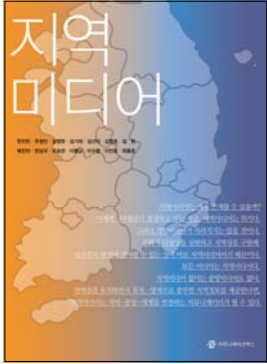
페이지원: <<뉴욕타임스>>와 저널리즘의 미래

뉴스 미디어의 혁명은 무엇인가? 인터넷 기반 매체가 모든 저널리즘의 특성을 수렴하며 성장한다. 인쇄신문이 위기인가? 미국의 저명 신문사들이 속속 도산했다. <<뉴욕타임스>>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2012년 흑자를 기록했다. 이 책은 다큐멘터리 [페이지원] 제작후기부터 힐러리 클린턴의 알 자지라에 대한 견해까지 저널리즘의 미래를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한다. <<뉴욕타임스>>와 그를 둘러싼 저널리즘의 미래는 우리나라의 언론 현실에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

데이비드 폴켄플릭, 이상훈, 신국환, 206쪽, 15,000원,

2014-05

지역미디어



지역미디어

지역미디어는 계속 존재할 것인가? 다매체·다채널 경쟁상황을 극복하고 지역·중앙·세계를 연결하는 커뮤니케이터로 발전할 이유는 무엇인가? 새로운 시대에 지역미디어가 수행할 새로운 역할과 비전을 보여 준다.

한진만·주정민·강명현·김기태·김선마·김영호·김현·배진아 변상규·유승관·이병남·이수범·이진로·최용준, 사륙배판, 308쪽, 21,000원, 2010-03



지역공동체 신문

미국의 9321개 신문 중, 약 97%가 지역신문이다. 이 책은 지역신문에 관한 교과서이자 자료집으로, 기자나 발행인이 당면하는 문제를 점검한다. 지역신문이 왜 중요하고 독특한지에서부터 지역적 관점의 취재보도 방법, 편집, 제작, 보도사진, 직원 관리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조크 로터러, 장호순, 크라운판, 571쪽, 33,000원, 2008-12



지역방송정책론

지역방송이 위기다. 뉴미디어 서비스의 확장, 중앙 지상파방송의 확대, 종합편성채널의 출현 등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지역방송의 위상이 나날이 축소되고 있다. 이에 한국방송학회 지역방송특별위원회에서 지역방송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내놓았다. 지역방송이 구현해야 하는 지역성에서부터 규제, 광고, 콘텐츠, 시청자 참여에 이르기까지 쟁점을 다각도로 성찰해 대안을 제시한다.

한진만·주정민 외 12, 신국판, 204쪽, 17,000원, 2013-02

총서교재

총서 교재는
강의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10가지로 콤팩트하게 정리했습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문화, 저널리즘의
개념, 이론, 역사를 망라합니다.
주교재, 부교재, 읽기 자료로
다양하게 활용해
강의를 알차게 만들 수 있습니다.



뉴스 스토리텔링

뉴스 스토리텔링은 디지털 미디어 저널리즘의 혁신 전략이다. 이 책은 저널리즘의 지평 안에서 뉴스 스토리텔링의 개념과 구조, 작동 원리를 체계적 이론과 사례를 통해 설명해 보다 적극적인 현장 도입과 발전을 지원하고자 한다. 스토리텔링을 기사 내용뿐 아니라 기획, 취재, 보도, 소통과 확산에 이르는 뉴스 제작 전체 과정에 적용되는 방법론으로 접근했다. 뉴스 스토리텔링의 진화를 주제로 삼아 게임과 놀이적 맥락, 멀티 미디어, VR, AI 등 다양한 기술과의 융합 속에서 이루어지는 뉴스 스토리텔링 실험과 성과도 탐색했다. 서사 이론과 뉴미디어 이론을 바탕으로 뉴스 스토리텔링을 준비하려는 제작진과 연구자를 위한 기본 지침서다.

권보연 · 신진주, 사륙판, 136쪽, 12000원, 2020-08



누구나 따라 하는 인터랙티브 뉴스

인터랙티브 뉴스는 반드시 화려하고 멋있는 효과가 들어가거나 제작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독자와 상호작용하면서 기자가 보여 주려는 핵심을 신선하게 표현하면 된다. 이 책은 언론사에서 직접 인터랙티브 뉴스를 만들던 저자의 시행착오와 노하우를 담았다. 인터랙티브 뉴스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물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툴을 이용해 다양한 유형의 인터랙티브 뉴스를 혼자서도 쉽게 따라 만들 수 있도록 열 가지 주제로 나누어 설명했다.

박기목, 사륙판, 106쪽, 9800원, 2016-04



뉴스 미디어 역사

뉴스를 전하는 미디어의 발달사를 다룬다. 부족사회의 구어 뉴스부터 현대의 스마트미디어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추구해 온 뉴스 미디어의 발달 과정을 조명한다. 뉴스를 '더 빨리 더 멀리' 전하려고 노력한 기술의 진화와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알고 싶어 하는 인류의 정보 욕구를 각 미디어마다 잘 소개한다.

이인희, 사륙판, 112쪽, 9800원, 2013-02



데이터 저널리즘 반값

저자는 최근 국내외 언론사들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데이터 저널리즘 현상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저널리즘의 위기와 사회과학 위기의 연관성을 주목해 저널리즘이 망하면 사회과학도 몰락한다는 주장을 제시한다. 데이터의 의미를 고민해 보고 뉴스와 지식, 지혜의 관계를 살피고 데이터와 저널리즘이 연결되는 부분을 컴퓨터 활용 보도, 정밀 저널리즘, 컴퓨터 기술 저널리즘, 소셜 매체, 정보 공개, 대안 언론이라는 틀에서 다룬다. 데이터 저널리즘에 활용하는 분석 프로그램들의 종류와 관련 하이퍼링크를 제시해 놓아 독자들이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다양한 연구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데이터 저널리즘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임종섭, 사륙판, 142쪽, 9800원, 2015-05



빅데이터와 언론

저널리즘 영역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저널리즘’이 떠오르고 있다. 데이터 저널리즘은 데이터를 이용한 보도로 데이터의 객관성에 힘입어 뉴스 콘텐츠의 질을 높이고, 언론 산업의 활성화도 추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독자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정보의 공유, 개방, 협업으로 저널리즘의 르네상스를 예측하기도 한다. 데이터 저널리즘의 기본 개념, 발생 배경, 현황, 향후 방향 등을 살펴보고 뉴스 콘텐츠 경쟁력 제고 방안도 알아본다.

신동희, 사륙판, 174쪽, 9800원, 2014-04



선거보도의 열 가지 편향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르는 직접선거와 관련한 미디어의 선거보도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편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현상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직면할 필요가 있다. 선거보도의 편향적 현상을 살펴보고, 왜곡된 사실, 선전적 사실, 공격적 사실, 가차 차별적 사실, 왜곡적 사실, 편파적 사실, 여론 조작적 사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미디어의 선거보도가 왜곡된 것이 왜곡된 이해를 한층 더 높이고 나아가 앞으로 미디어의 올바른 선거 저널리즘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박주현, 사륙판, 156쪽, 9800원, 2015-05



온라인 저널리즘

온라인 저널리즘은 인터넷 기술을 매개로 한 정보공간을 통해 뉴스를 생산하고 배포하는 일련의 저널리즘 활동을 총칭한다. 인터넷이 갖는 기술 특성으로 인해 좀 더 상호작용적이고 참여적이며, 시간과 공간에 제약되지 않고 정보가 맥락적으로 제공될 수 있어서 온라인 저널리즘은 전통 저널리즘과 다른 새로운 잠재력을 갖고 있다. 온라인 생산체계, 온라인 저널리스트의 역할과 규범, 그리고 온라인 시장과 수용자 참여방식 등 다양한 측면의 키워드로 온라인 저널리즘을 다룬다.

황용석, 사륙판, 142쪽, 9800원, 2013-02



인터넷 저널리즘에서 의제의 문제

전통 뉴스 생산 주체인 신문과 방송은 의제 설정에 대한 영향력과 신속성, 신뢰도 등에서 인터넷 매체에 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에서 새로운 의제 설정과 의제 과급 방식, 역의제 설정 주체인 1인 미디어의 가능성과 한계, 인터넷 공간에서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고찰과 함께 SNS 확대에 따른 인간관계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일련의 현상과 문제점들을 조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박주현, 사륙판, 144쪽, 9800원, 2014-04



저널리스트

저널리스트의 영역 구분이 사라진다. 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엔지니어, 디자이너, 기자가 융합하고 있다. 지면 개념이 희석되면서 마감 개념도 없어지고 있다. 기존의 뉴스 가치 판단도 바뀌고 있다. 하지만 저널리스트가 되는 방법이나 채용 방식은 기존의 틀이 대체로 남아 있다. 훌륭한 저널리스트 공교육 기관이 생겼지만, 아직까지는 세상의 빛이 되려는 예비 언론인들도 당장 수업료부터 벌어야 하는 것도 현실이다. 저널리스트는 행복하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고민이 생긴다. 미래 경쟁력 유지는 숙제다. 로봇 저널리즘과 경쟁도 해야 한다. 종이신문과 TV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물론 그래도 누군가는 기사를 쓰고, 프로그램을 만들겠지만.

이현택, 사륙판, 130쪽, 9800원, 2015-11



저널리즘 글쓰기 10원칙

정보산업이 폭발하고 있다. 신문 방송 등 전통적인 매스미디어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터넷 매체와 모바일이 강력한 뉴스 공급처와 소비처로 떠올랐다. 이들이 무한 경쟁하는 시대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저널리즘이라 하지는 않는다. 저널리즘을 '저널리즘답게' 하는 가치와 격은 무엇일까. 이 책은 그것을 '언어' 측면에서 들여다보았다. 넘쳐나는 정보 가운데 독자는 '입맛'에 맞는 것을 골라 본다. 수요자 중심의 시장에서 상품으로서 기사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독자 친화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한 글쓰기 방법을 10개 원칙으로 압축해 구체적인 사례로 풀어냈다. 신문 제작 현장에서 수집한 저널리즘 언어의 실무 자료를 엮은 길잡이 책이다.

홍성호, 사륙판, 132쪽, 9800원, 2015-11



중국의 출판 산업

2001년 중국은 WTO에 가입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 체제에 복속된다. 보수적이고 관료적인 국영 출판사 체제에서 독립화, 사업화, 그룹화라는 세 가지 큰 틀로 출판 산업을 개혁한다. 이는 출판사를 기업화, 상업화, 글로벌미디어그룹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거시적인 정책의 일환이었다. 문화부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출판에 관한 정책을 입안하고 법률을 제정하는 등 출판 시스템을 정비했으며, 이러한 중국 정부의 의지는 출판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비약적인 발전 뒤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듯이 불투명한 출판 시스템과 불법 복제는 중국이 안고 있는 과제다. 중국 출판 산업의 빛과 그림자를 면밀히 살펴본다.

이건웅, 사륙판, 130쪽, 9800원, 2015-05



천관우의 언론 사상

후석 천관우는 195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이름을 떨쳤던 언론인, 사학자, 민주화 운동가였다. 사회적으로는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인물로 인정받는다. 그는 '열정'으로 학생들을 군부 정치권력에 부당한 행위에 저항했다. 역사학자로 출발했으나 한국전쟁을 전후 언론기계에 관심사가자로 들어가 언론인의 삶을 깊게 다져냈다. 그 당시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통해 언론의 개혁과 거두역사에서 일군다. 실학을 바탕으로 현실세계를 연구해 현대적 정치경제론 체계로 재구성하려 했고, 조선 후기 선비들을 구한말 언론 지식인들과 연결해 시사적 언행의 필요성을 고취하기도 했다. 후대에 귀감으로 전할 수 있는 그의 삶을 정리했다.

조맹기, 사륙판, 142쪽, 9800원, 2015-11



출판기획물의 세계사 2

이 책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출판기획물 10종을 저작물의 성립 배경, 내용, 사회적 영향 등에 따라 시기별로 서술한다. 인류 문명의 시작과 함께 신화적 사고에서 형성된 세 편의 저작물,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 인도의 『마하바라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살펴본다. 중세 때 본격적인 종교적 삶의 세계가 반영된 유대인의 『탈무드』, 이슬람 경전인 『코란』, 선불교 선사들의 가르침과 일화를 다룬 『벽암록』을 고찰한다. 근대에 와서는 지식의 집대성을 이룩한 영국의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중국의 『사고전서』, 독일의 ‘레클람 문고’를 소개한다. 또한 기록문화의 정점을 이루어낸 조선 왕조의 『승정원일기』도 포함했다.

부길만, 사륙판, 142쪽, 9800원, 2015-11



컴퓨터이셔널 저널리즘, 새로운 뉴스 제작 기술

저널리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컴퓨터이셔널 저널리즘이 있다. 가장 기술 지향적이고 개방적인 저널리즘이다. 뉴스의 제작·유통·이용 과정에서 기존 저널리즘과는 다른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제시한다. 이 저널리즘의 핵심 기술 요소를 체계적으로 소개한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저널리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뉴스 제작 과정별로 대표적인 기술들을 선별해 각 특징을 설명했다.

이정훈, 사륙판, 122쪽, 9800원, 2016-05



한국 신문 역사 반값

한국의 언론은 개화사, 독립운동사, 정치사, 문화사를 포괄하는 역사의 거대한 흐름과 함께 미시사(微視史)까지 기록한 1차 사료의 가치를 지닌다. 신문은 근대사를 이끌고 창조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개화와 수구, 항일과 친일, 민주와 반민주의 상반된 가치를 아울러 담고 있는 시대의 거울이었다. 개화의 문을 연 한성순보에서 대한제국 개혁의 선도자 독립신문, 항일 민족지 대한미일신보, 일제 강점기와 광복 이후 언론의 역사를 주제별로 개관한다.

정진석, 사륙판, 144쪽, 9800원, 2013-02



현대 저널리즘 반값

현대 저널리즘의 모습을 저널리즘 유형들을 통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저널리즘 내부의 논리, 저널리즘이 외부 세계와 갖는 관계, 현장에 나타나는 저널리즘의 실제 모습들, 그리고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의한 새로운 저널리즘 현상 등 네 가지 관점에서 유형들을 나누고 있다. 열 가지 저널리즘 유형들을 논의하면서 저널리즘을 인과관계와 같은 단선적 사고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이야기한다. 한마디로 일상에서 경험하는 저널리즘 현상들을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다듬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김사승, 사륙판, 124쪽, 9800원, 2013-02

다른 과목이 궁금하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광고

공간 커뮤니케이션

PR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미디어경제, 경영, 정책

미디어론

뉴미디어, 멀티미디어, 소셜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

방송, 영상

연구방법론

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저널리즘

소통, 스피치, 글쓰기, 토론

미디어교육

한국어

대중문화

가이드를 다 보았는데도 마음에 드는 교재가 없다고요?

내 마음대로 만드는 '리딩패킷 교재'를 이용하세요.
꼭 필요한 부분만 골라 나만의 교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리딩패킷 만들기 튜토리얼 영상 보기](#)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교재 문의

02-3700-1207, text@commbooks.com

커뮤니케이션북스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5-11 (성북동1가 35-38)

T.02-7474-001 F.02-736-5047 commbooks.com